

유럽 자동차 산업의 구조 재편 : BMW의 도약

유럽 자동차 산업에 구조 재편의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다. 지난 1월 31일 BMW社は 영국 자동차업계의 마지막 보루로 간주되던 Rover社 株式 80%를 인수함으로써, 유럽의 7대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지난해 3.2%에 불과했던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6.4%로 끌어올림으로써 그 동안의 맞수였던 Mercedes Benz社를 일거에 따돌렸으며 (<표> 참조), 기존의 고급 승용차 위주에서 지프와 소형차에 이르는 차종의 다양화를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유럽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인수된 Rover社は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작년 유럽 자동차 시장 전체가 15.1%의 판매 감소를 겪었음에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난 우량기업이며, 일본 Honda社로부터 생산 기술 및 엔진 등을 공급받으며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BMW의 인수 작업은 기존의 유럽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비스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BMW의 도약은 통일 이후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다른 독일 기업들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을 꾸준히 추구한 결과라고 지적되고 있다. BMW社は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매·연구개발·디자인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BMW는 지난 '92년에 미국시장에서의 판매량이 23%나 증가했으며, 특히 고급차 시장에서는 7.3%라는 최고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BMW의 앞날이 마냥 장미빛 탄탄대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유럽자동차 산업이 공급 능력의 과잉 때문에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해 왔으며, 현재의 공급 과잉 규모가 무려 연간 200만 대 수준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Rover社가 나머지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던 Honda社가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BMW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다. BMW가 과연 이렇게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하고 Rover社の 인수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건지 유럽의 자동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Source: *Financial Times*, 2/22(1994)

*The Economist*, 2/5(1994)

<표> 주요 기업의 유럽 자동차 시장 점유율 비교(1993년 기준)

|                  |       |
|------------------|-------|
| ○ Volkswagen     | 16.5% |
| ○ General Motors | 13.0% |
| ○ Peugeot        | 12.2% |
| ○ Ford           | 11.5% |
| ○ Fiat           | 11.1% |
| ○ Renault        | 10.5% |
| ○ BMW            | 6.4%  |
| ○ Mercedes Benz  | 3.1%  |
| (○ 일본차 합계)       | 12.1% |

영국 기업의 경영 성적표 : 배당은 우수, R&D 투자는 불량

영국 기업들이 R&D 투자에는 인색한 반면, 상대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는 지나칠 만큼 너그럽다는 비판이 또다

시 제기되었다. 스웨덴 최대의 통신 기업인 Ericsson 社の Lars Ramqvist회장은 지난 주 영국 정부가 주최한 연례 「혁신 강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영국 기업들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줄이고 그 자금을 R&D 투자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 동안 영국 기업들의 R&D 투자에 비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영국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2~1993년 중 세계 10대 R&D 투자 기업들은 주주들에 대한 배당액보다 평균 4배 정도 많은 자금을 R&D에 투자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영국의 10대 R&D 투자 기업들 가운데 이 정도의 수준의 R&D 투자를 한 기업은 Rolls-Royce 하나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R&D투자액과 배당액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BT나 Shell 같은 경우에는 R&D투자액보다 4~5배나 많은 돈을 배당을 위해 쓴 것으로 드러났다.

Ramqvist회장은 Ericsson 社の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이 같은 영국 기업들의 운영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ricsson 社は 1990년 Ramqvist회장이 처음 취임한 이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대폭 줄였으며,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R&D에 투자해 왔다. 이 기간중 Ericsson 社の R&D투자액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의 약 15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1992년에는 매출액 중 3분의 1을 1990년 이후 2년 동안에 새로 개발된 신제품이 차지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Ericsson 社は 현재 전세계 Digital 통신 장비 시장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Ramqvist회장의 표현을 빌자면 "R&D는 長期는 물론 短期利益도 보장하는 투자"인데, 영국 기업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주요 기업의 「R&D 투자/배당액」 비율 비교(단위:배)

| 세계 10대 R&D 기업  |       | 영국의 10대 R&D 기업     |      |
|----------------|-------|--------------------|------|
| General Motors | 5.50  | ICI                | 1.64 |
| Daimler-Benz   | 15.40 | Glaxo              | 1.16 |
| Siemens        | 11.53 | SmithKline Beecham | 1.79 |
| IBM            | 1.88  | Unilever           | 0.98 |
| Ford           | 4.43  | Shell              | 0.19 |
| Hitachi        | 14.42 | GEC                | 1.61 |
| Toyota         | 6.64  | BP                 | 0.55 |
| Matsushita     | 14.52 | Wellcome           | 2.27 |
| Fujitsu        | 20.59 | BT                 | 0.27 |
| AT&T           | 1.65  | Rolls-Royce        | 4.71 |

\* Source: New Scientist, 2/19(1994)

유럽의 경쟁력 저하, R&D 부진 때문

유럽이 오늘날과 같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제 경쟁력에서 뒤지게 된 주원인은 R&D에 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게을리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지난 '80년대를 통해 유럽 국가들은 국가 전체 R&D는 물론 산업계 R&D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크게 뒤졌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 제품(high technology products)이 수출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면 이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즉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출액 중에서 각각 1/3, 1/4을 첨단 기술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유럽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R&D 관련 통계들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을 잘 설명해 준다.

먼저 R&D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 지난 '91년 유럽 연합 12개 회원국들은 GDP의 불과 1.96%만을 R&D에 투자했는데 비해 미국은 2.74%, 일본은 2.87%를 각각 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회원국 중에서 겨우 독일 한 나라만이 2.66%를 기록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근접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꾸준히 R&D 투자가 증가되었으나, 유독 영국만은 '81년보다도 R&D 투자 대 GDP 비율이 더 낮아짐으로써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방분야에 투입되는 R&D 투자의 규모를 제외하면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 현재 순수 민간 분야에 투입되는 R&D 투자의 규모는 GDP 대비 일본이 2.8%인데 비해서 미국은 2.1%, 유럽의 경우에는 겨우 1.8%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군사력을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격차가 '91년 한 해에만 국한되어 일어난 현상이 아니며, '80년대 내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다.

R&D 활동의 성과가 지표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특허 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유럽의 R&D 활동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지난 '80년 이후 유럽 기업들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특허 등록 비중에서 일본 및 아시아 신흥 공업국 기업들에 밀려나는 퇴조를 거듭해 왔다. 심지어 유럽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왔던 제약과 생명 공학 분야에서도 뚜렷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지난 '82년 독일·영국·프랑스 3개국은 제약 분야에서 미국 특허의 22.7%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92년에는 이 비율이 18.1%로 폭 떨어졌다.

물론 아직까지 개별 기업별로 본다면 Daimler-Benz, Siemens(이상 독일), ABB(스위스), Philips(네덜란드) Ericsson(스웨덴) 등이 미국과 일본 기업 못지 않게 많은 R&D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럽의 장래를 밝혀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유럽 산업계의 기술 혁신 활동-특히 새로 발명된 기술의 상업화-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럽의 국제 경쟁력 또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 Source: *Financial Times*, 3/2(1994)

\* 유럽편 담당: 金基國(동향분석연구실)